시도·지역회 소식

서울 경우회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 서경마루에서 김정웅 회장,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갖고 당면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경우회 임원단과의 인사를 나눈 이기묵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질서있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우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경우회

최근 시도회 사무실에서 기우회 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바둑대회를 갖고 회원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1위는 홍일선 회원이, 2위는 손진태 회원이, 3위는 최원웅 회원이 각각 차지해 푸짐한 상품을 받은 가운데 김만호 인천 경우회장은 오찬을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제주 경우회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김영중 회장, 한휴택 지방청장, 김태환 제주지사 등 내빈과 전현직 경우 3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고 시도회 발전 및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여경회

지난 1월 18일 오전 11시 중앙회 사랑방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당면현안을 협의하는 한편 평소 지병에 걸린 시부모와 친부모의 공양 및 병수발은 물론 투철한 국가관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김미숙 경사에게 감사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박종순 회장은『평소 효행심이 남달라 모범을 보이고 있는 김미숙 경사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효행상을 주고, 사비로 격려금 1백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더욱 꿋꿋하게 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했던 구홍일 중앙회장도 격려사를 통해『경우사랑방 개설후 여경회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축복받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여경회 발전과 회원친목도모, 전현직 유대강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정읍 경우회

최근 1월 월례회의를 갖고 지역회 임원 등이 기탁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 30만원을 KBS 전주 방송국, 정읍신문사, 불우회원 등에게 각각 10만원씩 전달했다.

대전 서부 경우회

최근 경찰서 회의실에서 오문영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우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는 한편 회의 활성화와 회원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더욱 힘쓸 것을 결의했다.

서울 종암 경우회

최근 이승범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경찰서 전경대 내무반을 방문하고 격무에 수고하는 전경들에게 시루떡과 수건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서울 관악 경우회

최근 변창선 회장과 김성훈 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에 애쓰는 방범순찰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先輩 警友 돕는 일에 앞장설 터

- 명영수 논산경찰서장

논산 경찰서 명영수 서장이 평소 선배 경우조직인 경우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내 자신도 퇴임하면 경우회원이 될 것이 아니냐』는 명 서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하면서 부터 경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를 드리는 것을 비롯, 경우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물어 보는 등 관심을 가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경우의 날에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선배 경우들을 극진히 모시는 한편 병석에서 고생하고 있는 10여명의 경우들의 명단을 파악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쾌차하실 것을 기원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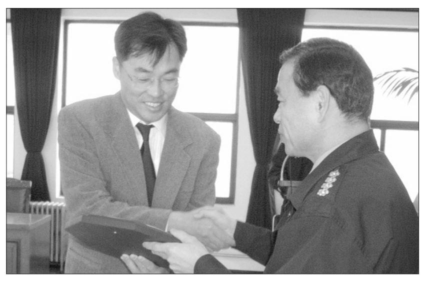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서로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자는 취지로「전직 선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논산 경우회원 전원을 경찰서로 초대하고 경찰서 과장들과 지구대장 등이 모두 나와 박수로 영접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꽃을 달아주면서 참석 경우들을 경찰서 회의실에서 업무현황 브리핑과 오찬을 성대히 베풀어주는 것을 비롯, 행사 당일 차량 편의 제공과 안전을 위한 교통안내까지 배려해 줌으로서 소외 되었던 경우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선배 경우들이 후배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이러한 명 서장의 경우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김 옥영 논산경우회장은『회원 등록율이 저조하고 구성원들이 노령화 되고 있는 지역회 실정에서 현직들의 경우회에 대한 관심은 모임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사를 계기로 전현직이 상호간에 새롭게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명 서장은『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선배 경우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사람

안과의사, 경찰관에 무료라식 시술



한 안과의사가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무료 라식(LASIK) 시술을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 성동동 성모안과 김형일(43세) 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찰관에게 라식시술을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60여명에게 혜택을 줬다.

김 원장은 2003년에도 경주소방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라식시술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초 라식시술을 받은 경주서 역전지구대 임상익 경장은 "10년 넘게 끼던 안경을 벗게돼 기쁘다"며 "수술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냈는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평소 지역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안경을 끼고 근무하는게 안타까워 시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지난해 말까지 시력 검사를 받은 경찰관들에 한해 라식 시술을 계속 할 계획이다.

경주경찰서는 이날 회의실에서 김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주서 관계자는 "안경 착용으로 불편해 하던 경관들에게 무료시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지역치안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식은 각막에 레이저를 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건당 150~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審判臺

뇌물수수 전직 총경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사건 무마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성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모(48세) 전 총경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건넨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 사실의 직접 증거인 건넨 측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사리에 맞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내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5~7월 공사 관련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한선 前치안감 '해임취소'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1일 수사내용 사전 유출 및 주식투자 관련 개인비리 등의 이유로 해임된 이한선 전 치안감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의 주식투자를 한 뒤 손실을 보전받은 것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수사지휘비 편법 사용은 종전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고 경찰청장 사전승인 없이 간부후보생 외출, 외박 등을 확대한 게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2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시 모 사립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사건과 관련, 수사팀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대학측에 팩스로 보내준 혐의와 주식투자 관련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지난해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었다.

지방 안테나

경북지역 어린이들 경찰 아저씨와 펜팔 붐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말부터 관내 초등학생과 경찰관 사이에 '편지주고 받고 운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운동은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편지를 쓰는 문화가 거의 사라진 요즘 세태에 어린이들이 경찰관과 그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위안을 주려고 시작됐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경북지역 초등학생들은 모두 6천 500여통의 위문편지를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에게 보내왔고, 편지를 받은 경찰들도 모두 5천8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답장을 했다. 특히 경찰관들이 보낸 답장은 경찰의 대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 '포돌이. 포순이'가 그려져 있어 어린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날'과 '어린이날' 등 편지를 주고 받는 당사자들에게 의미가 큰 날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어린이들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초대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어릴 적 '국군 아저씨께'라는 제목의 위문편지를 보내보긴 했지만 어린이들의 위문 편지를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경찰과 편지를 주고 받는 어린이들이 밝고 맑게 자라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영동경찰, 노인 순찰차 태우기 '성과'

충북 영동경찰서가 실시하는 '노인 순찰차 태우기 운동'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 이 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82.4%(17명 중 14명)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순찰차 태우기 운동을 펼친 뒤 지금까지 단 1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해진 뒤 도로를 걷거나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 75명을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줬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야간에 도로를 걷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아이디어를 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고 경찰 이미지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 전화친절 꼴찌에서 1등으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및 운전면허 관리단, 경찰병원 등 16개 유관기관의 올 4/4분기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한 결과 전북경찰청이 83.1점(1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경찰관들의 대외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전화연결의 신속성과 수화요령, 통화태도, 끝맺음 인사 등이다. 전북경찰은 지난 1/4분기와 2/4분기 조사 때 14위를 기록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꼴찌였고 3/4분기 조사 때도 12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었다.

전북경찰은 이후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별로 전화친절도 점검단을 구성해 자체평가에 나섰고 이 자료를 토대로 매달 전화친절에 대해 집중적인 교양 및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불친절 평가를 받은 직원 40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도 병행했다.

전북경찰청 김종식 경무계장은 "집중적인 교양.교육 등으로 단기간에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친절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중 전화 적발시 이어폰 제공

충북 영동경찰서는 24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용 이어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이어폰은 SK텔레콤 영동대리점이 교통사고 방지용으로 특별 제작한 것으로 시가 1만원 짜리다.

경찰은 이 대리점으로부터 이어폰 200개를 기증받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운전 중 전화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글과 함께 무상 제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운전자에게 이어폰을 나눠줘 사고도 예방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반응이 좋아 자체예산으로 이어폰을 추가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우신문」 원고 모집

◎ 時論, 提言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중 그때그때 사회문제화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여 국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

◎ 독자의 소리
-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낀 일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

◎ "이래도 됩니까"
- 전·현직 누구나 체험한 일 중에서 사회 고발성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 (특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

◎ 취미나 건강
- 노후인생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건강비법이나 취미생활

◎ 行事, 動靜, 結婚, 訃音 等
- 支部, 支會 행사 또는 동기생 모임이나 경찰재직중 갖게된 각종 모임 소식
- 회원의 출신계급과 관내·외 거주를 불문하고 소식과 動靜을 사진과 함께 송부
- 결혼, 부음 등은 일시 장소와 회원과의 관계를 명시

◎ 기타 원고
- 경우회의 발전방향이나 경찰과 관련이 있는 내용

※ 200자 원고지 6매(A4용지 2매) 內外로 작성하여 경우신문 담당자 앞으로 송고